

연구방법론				번호: I - B - 1	
제 목	국문	'의사에 의한 사망진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문	Factors affecting 'death confirmation by physicians'			
저 자 및 소 속	국문	강영호, 이무송, 이상일, 조민우, 구희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Young-Ho Khang, Moo-Song Lee, Sang-Il Lee, Min-Woo Jo, Hee-Jo Koo Dept. of Preventive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분 야	역 학 연구방법론	발 표 자	강영호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0월				
<p>1. 연구 목적 '의사에 의한 사망 진단'을 사망원인 자료의 활용 가능성 지표로 삼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p> <p>2. 연구 방법 1990년-2000년까지의 우리 나라 사망자료(N=2,637,740)를 바탕으로 사망자의 특성별(사망연도,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사망원인 등)로 '의사에 의한 사망 진단율'을 파악하고, 사망시 연령이 30-80세 (N=1,915,117) 인 사망자를 대상으로 '의사에 의한 사망 진단'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p> <p>3. 연구 결과 1990년-2000년까지의 전체 사망자 2,637,740명 중에서 '의사에 의한 사망 진단'이 이뤄진 비율은 58.9%이었다. 연도별로 '의사에 의한 사망 진단율'은 큰 변화를 보여, 1990년의 44.6%에서 2000년의 71.2%로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사망시 연령 20-60세인 사망자들의 '의사에 의해 사망 진단율'은 80%-90%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혈관계 질환(ICD-10 : I) 보다는 종양(C00-D48)이나 외인에 의한 사망(S-Y)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에 의한 사망 진단율'이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사망연도가 최근일수록, 여성에서, 연령이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광역시에서 '의사에 의한 사망 진단' 가능성이 높았다. 교육수준을 보정하지 않았을 때는 남성에서 '의사에 의한 사망 진단' 가능성이 높았으나, 교육수준을 보정할 경우, 그 반대였다.</p> <p>4. 고찰 최근에 사망, 젊은 연령, 고학력, 도시지역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학연구의 경우, 90% 이상의 '의사에 의한 사망 진단율'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망원인 자료의 활용 가능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성, 연령, 교육수준, 지역(도시화)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의사에 의한 사망 진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망연도의 효과가 있으므로, 이의 원인에 대한 연구(의료보험의 확대와 의료기관 이용의 증가, 사망장소에 대한 문화적 요인 변화 등)가 필요하다.</p>					